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403>

JCCT 2022-1-46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중국어 번역본 비교 연구 - 4종 번역본의 번역전략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Translations of 『Who ate all the Shinga?』 - Focusing on the Translation strategy of 4 types of Translations

양레이*, 문대일**

YANG LEI*, MOON DAE IL**

요약 본 연구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국어 번역본 4종의 번역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지하듯, 박완서의 작품은 인물의 심리 묘사, 추상적인 어휘, 관용어, 속담, 방언 등이 많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이역, 해석역, 창조역 등 다양한 번역 전략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연구한 4종 모두 번역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모든 번역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4종 모두 지명 명사, 인물 호칭 등을 번역할 시에는 한자어를 활용한 이역 전략을 많이 활용하였다. 역사·사회·문화·지리의 배경적 해석이 필요한 어휘 등에 대한 번역은 해석역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중복, 정치·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 한국어 발음 및 문법과 관련된 문제 등을 번역할 때는 창조역 전략을 활용하였다.

주요어 : 박완서, 번역 전략, 이역, 해석역, 창조역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four Chinese translations of 『Who ate all the Sing a?』. As is well known, Park Wan-seo's works contain many psychological descriptions, abstract vocabulary, idioms, proverbs, dialects, etc., so when translating into Chinese, various translation strategies such as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creative translation are required. Although all four types studied in this paper are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the translator, all translation strategies were used in a comprehensive way.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four translation strategies used a strategy of direct translation of Chinese characters when translating geographical names and names of people. The interpretational translation strategy was used for the translation of vocabulary that requires historical, social, cultural, and geography background interpretation. was utilized. The creative translation strategy was used when translating overlapping issues, political and historically sensitive issues, and issues related to Korean pronunciation and gramma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ranslation strategy research on various Chinese translation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s well as various Chinese translations of Park Wan-seo will be expanded.

Key words : Park Wan-seo, Translation Strategy, Direct Translation, Interpretatioal Translation, Creative Translationcreative Translation

*정희원, 베이징제2외국어대학교 아시아학부 교수 (제1저자)

**정희원, 서원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31,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wendayi@hanmail.net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won Univ, Korea

1. 서 론

2022년은 한중 교류 30주년으로, 한중 양국은 지금까지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문화계는 문학 작품의 번역·출판 등의 사업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번역출판지원사업과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 지원사업의 동력을 받아 많은 한국 작품이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면서, 이른바 ‘문학 한류’의 시대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 중 한국 현대 문학계를 대표하는 박완서의 『그 남자네 집』, 『아주 오래된 농담』, 『회청거리는 오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의 작품은 중국어권에서도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국내에서 다양한 판본으로 재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국에서 소설 제목만 7가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으며, 그중 내용까지 번역된 것은 총 4종에 이를 정도로 끊임없이 재번역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4종의 중국어 번역본 사이의 번역가가 활용한 번역 전략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번역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동일한 원천 텍스트를 번역할 지라도, 상이한 번역 전략을 활용하면 각기 다른 번역 텍스트가 도출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번역본은 모두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나, 중국과 대만이라는 상이한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어휘 등과 번역가가 운용한 전략, 목적, 수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번역 양상이 나타났다. 때문에 본고의 목적은 아직까지 연구가 되지 못한 4종의 중국어 번역본 간의 번역 전략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박완서의 원본 작품과 중국 대륙본 2종, 대만본 1종, 국내 석사학위논문 1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번: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번: 安金連, 『那麼多的草葉哪裡去了?』

3번: 薛舟、徐麗紅, 『那麼多的酸模都讓誰吃了?』

4번: 李麗秋, 『故鄉飄已遠』

5번: 劉涵滋, 『那麼多酸模都讓誰吃了?』

1번 번역본의 역자는 安金連이고 2005년도에 대만에서 출판되었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중국 대륙과의 문화적 차이로 번역본의 어휘, 단위 등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2번 번역본은 薛舟와 徐麗紅이 협력하여 번역한 것으로 2005년에 『當代外國文學』에 실렸지만 출판까지는 이어지 못했다. 그러나 활용된 번역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3번은 번역본의 역자는 李麗秋이며 2018년 중국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이다. 그리고 4번은 국내 석사학위논문으로 정식 출판되었기 때문에 분석 텍스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상 4종의 번역본은 모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번역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각 번역본의 번역 양상 간 차이가 나타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상이한 번역 전략의 활용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먼저 번역된 제목만 살펴보면, TT1: 『那麼多的草葉哪裡去了?』, TT2: 『那麼多的酸模都讓誰吃了?』, TT3: 『故鄉飄已遠』, TT4: 『那麼多的酸模都讓誰吃了?』이다. TT1에서는 ‘싱아’를 ‘草葉’로, TT2와 TT4에서는 ‘酸模’로 번역하였다. 사실 TT1의 ‘酸模’는 ‘草葉’보다 더욱 원문에 충실히 번역한 번역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싱아’라는 풀잎이 젊은 한국 독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酸模’가 중국어권 독자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TT2와 TT4는 ‘싱아’를 보다 중국어권 독자가 익숙한 ‘草葉’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TT3의 제목은 완전히 창조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작품의 내용을 반영하여 ‘故鄉飄已遠(‘고향을 멀리 떠나왔다’는 뜻으로, 蘇東坡의 시 『初發嘉州』를 인용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한 제목이다)’라고 전략적으로 번역하였다. 이와 같이 4종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국어 번역본 제목이 각기 상이한 이유는 각기 다른 번역전략을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 번역은 ‘재창조’의 과정이다. 그리고 ‘재창조’의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원천텍스트가 지닌 문화적 요소가 번역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목표텍스트 독자가 원문과 가까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의 번역은 여러 가지 번역 전략을 복합적으로 운용하고 미학적인 효과까지 고려

하면서 ‘내용적 등가’를 실현해야만 한다. 또한 각기 다른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어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등의 번역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한다.

II. 연구방법

중국의 비교문학자 겸 번역이론가 왕상위안(Wang Xiang Yuan, 1962~)은 역대 번역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논의 되고 있는 ‘직역’, ‘의역’, ‘직역+의역’ 등의 개념이 부족한 부분을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 다시 번역 이론을 정립하였다. 본고는 왕상위안이 주장한 번역 이론 중 이역(意譯), 해석역(釋譯), 창조역(創譯) 등을 운용하여,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번역본에 나타난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번역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ST(원문), TT1(安金連), TT2(薛卉, 徐麗紅, 본 번역본은 아쉽게도 원문의 제1장만 중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본문도 관련된 부분만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TT3(李麗秋), TT4(劉涵滋)를 대조 분석하여 각각의 번역 전략을 확인하고, 텍스트의 오역과 한계 및 ‘내용적 등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번역본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활용한 번역 전략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I. 이역 전략

소위 이역(意譯)이란 일종의 ‘평행이동식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6] P97). 원문을 충실하게 옮겨 번역하는 것으로, 대부분 특별한 부가적인 설명이 없이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ST: 장독대도 뒤란에 있었고 터줏대감을 모신 터줏자리도 뒤란에 있었다 [1].

TT1: 醬缸台也在后院, 供奉土地爺的祭壇也在后院 [2].

TT2: 醬缸台在后院, 供奉土地爺的神龕也在后 [3].

TT3: 醬缸台在后院, 供奉土地爺的祭壇也在后院 [4].

TT4: 醬缸台在后院, 供奉土地爺的神龕也在后院 [5].

위 예문을 보면 ‘장독대’, ‘뒤란’, ‘터줏대감’을 4종 번역본 모두 각각 ‘醬缸台’, ‘后院’, ‘土地爺’로 번역하였다. 상술한 명사들은 중국어권 독자들이 부가적인 설명 없이

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역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번역하기 용이하다. 그밖에 인명, 지명, 성어, 작품명 등을 번역할 때도 4종의 번역본 모두 이역 전략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개성(開城), 부청(府廳), 일거양득(一舉兩得), 진서(眞書), 이상(李箱), 『권태』(『倦怠』) 등이 있다.

IV. 해석역 전략

해석역은 원문의 의미를 목표어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번역 전략이다. 중국 고유의 어휘로 불교의 어휘를 설명하거나, 혹은 문장으로 해당 어휘를 설명하는 방법([6] P26)으로, 고대 중국에서 불경을 번역할 때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주로 역사·사회·문화·지리의 배경적 해석이 필요한 어휘에 대한 번역, 일부 고유명사에 대한 번역 등에 주로 활용되었다.

ST: 할아버지는 우리는 양반이고 그들은 상것이라고 했다 [1].

TT1: 爺爺說我們是貴族兩班, 而別人是下賤的平民 [2].

TT2: 爺爺說, 我們家是兩班貴族, 而他們是下賤的平民 [3].

TT3: 祖父說我們家原來是兩班, 而他們都是平民 [4].

TT4: 祖父說我們家是兩班, 他們是平民 [5].

위 예문을 보면, TT1과 TT2는 원문에 없는 ‘귀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에서 ‘양반’은 ‘고려·조선 시대에,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8])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의 정치·경제·역사·문화 등의 배경지식이 없는 목표어 독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의미적 등가’를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TT1과 TT2의 번역자는 목표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반’ 앞 혹은 뒤에 ‘귀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반면에 TT3은 해석역 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원문에 충실하여 ‘양반’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TT3은 의도적으로 목표어 독자들에게 ‘생경한 이국적 느낌’을 최대한 살려 전달하고 있다. TT4는 TT3과 마찬가지로 ‘양반’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여 번역하였지만, 추가로 각주를 달아 ‘양반’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비록 각주로 ‘양반’을 설명하였지만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밖에 ‘상것’을 TT1과 TT2는 ‘下賤的平民(비천한 평민)’이라고 번역했고, TT3과 TT4는 ‘平民(평민)’이라고 번역했다. ‘상것’은 ‘양반 계급이 평민을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8])로 그냥 ‘평민’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비천한 평민’이라고 해석을 덧붙여 번역하여 그 의미를 더 살렸다고 할 수 있다.

ST: 아랫도리는 숨바지 위에다 어깨허리가 달린 **통치마**를 입었다 [1].

TT1: 我下半身穿的是棉袴, 袴子上面還套着筒裙 [2].

TT2: 我下身穿的是棉袴, 外面套着一**件**筒裙 [3].

TT3: 至于下身, 就在棉袴上面套一**條**腰間相連的筒裙 [4].

TT4: 我下半身穿的是棉袴, 外面套着一**个**筒裙 [5].

전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위 4가지 예문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TT2와 TT3은 원문에 없는 양사를 삽입하였다. ‘條’는 길고 가느다란 물건을 셀 때 사용하며, ‘件’은 옷 따위를 셀 때 사용한다. 때문에 중국어에서 ‘筒裙’을 셀 때 ‘條’와 ‘件’ 모두 사용이 가능한 양사이다. TT4는 구어일 때 통상 사용하는 ‘个’를 사용하여 중국식 대화법에 맞게 번역하였다. 이러한 양사는 한국어 원문에 없는 문법적 요소지만 중국어로 번역할 때 추가하여 번역해야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 있다. TT1은 정확한 양사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목표어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ST: 미군이 진주하기 전 부터도 개성엔 미국이 들어올지 소련군이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삼팔선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면서**…… [1].

TT1: 早在美軍進駐以前就有很多人繞着**三十八度線**議論紛紛, **說開城正好位于三八線分界線上**, 爲此相互猜測到底會有哪個部隊進駐開城…… [2].

TT3: 由于**開城剛好位于三八線上**, 早在美軍進駐錢大家就紛紛議論進駐的會是美軍還是蘇軍…… [4].

TT4: 由于**開城剛好位于三八線上**面一点点, 早在之前大家就開始議論到底是美軍進來還是蘇聯軍…… [5].

한국의 역사와 지리 등의 배경지식이 없는 목표어 독자의 경우, 3·8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심지어 3·8선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때문에 TT1의 번역자는 해석역 전략을 활용하여 원문에 없는 ‘三十八度線(38도선)’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TT3과 TT4는 중국인의 사고 습관에 맞게 앞 뒤 문장을 도치시켜 번역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밖에 TT1, TT3, TT4 모두 ‘3·8선’ 앞에 원문에 없는 ‘개성’이란 지역명을 추가로 덧붙여 번역하여, ‘개성’이 위치적으로 ‘3·8선’ 부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목표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 **깜깜한 밤**이었지만 우리 다섯 식구는 **쉬지 않고** 이십 리 길을 달려갔다 [1].

TT1: 雖然是**伸手不見五指的漆黑夜晚**, 但我們五口人完全沒有歇腳, 就這樣疾走了二十里 [2].

TT3: 夜黑得**伸手不見五指**, 但我們五口人還是**馬不停蹄**地走了二十里路 [4].

TT4: 雖然是**伸手不見五指的夜晚**, 但我們五口人**馬不停蹄**, 走了二十里路 [5].

TT1, TT3, TT4의 번역자 모두 원문에 없는 ‘伸手不見五指’라는 속어를 추가하였다. ‘伸手不見五指’는 ‘깜깜해서 다섯 손가락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TT1, TT3, TT4는 모두 원문의 의미에 문학적 느낌을 더하고, 목표어 국가의 언어습관을 최대한 살려 원문의 의미와 느낌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伸手不見五指’를 추가하였다. 또한 TT3과 TT4는 원문 ‘쉬지 않고’의 의미를 직역하지 않고 ‘馬不停蹄(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라는 성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이는 중국식 언어 표현 습관을 고려하여 재해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 창조역 전략

창조역 전략은 각국이 처한 문화적 정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창의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자의 판단에 따라 ‘긴 문장을 나누어 번역하는 것’, ‘원문의 수사법을 모방하여 번역하는 것’, ‘축소하여 번역하는 것’, ‘번역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 ‘번역 시 문장을 변형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같은 창조역 전략은 원문과 번역문 간에 '내용적 등가'를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의미의 중복, 정치·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 한국어 발음 및 문법과 관련된 문제, 감탄사 사용 문제 등의 부분에 주로 창조역 번역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T: 할머니도 **나들이** 옷을 펼쳐입고 우리를 따라나섰다 [1].

TT1: 奶奶也穿好衣服跟了出来 [2].

TT3: 奶奶也穿好了衣服, 跟着我們一起出發了 [4].

TT4: 祖母也穿好了衣服, 跟着我們一起出發了 [5].

TT1, TT3, TT4 모두 '나들이'라는 단어를 생략하였다. 주지하듯, '나들이'는 '잠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들이' 뒤에 '따라나섰다'라는 서술어가 있어 의미상 중복된다.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중국어 문장이 어색하게 된다. 따라서 의미가 중복되는 '나들이'를 과감히 생략해서 번역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 밖에 TT1, TT3은 '할머니'를 '奶奶'로 번역하여 친숙한 느낌을 더하였으며, TT4는 '할머니'를 '祖母'로 번역하여, 명확한 촌수 호칭을 사용하여 사실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ST: 엄마가 서울 간 후 할머니가 때때로 "**가에다 기억 하면 각, 니은 하면 간**"하는 식으로 땀겨 주시지 않았으면 그나마 아주 까먹을 것이다 [1].

TT1: 媽媽去了漢城以後是奶奶經常提醒我, **ka和k相拼是kak, 和n相拼是kan**, 要不我真有可能連那些都會忘掉 [2].

TT3: 媽媽去了漢城以後, **如果不是奶奶不時的提醒我該如何拼寫韓文**, 恐怕我早就忘得一干二淨 [4].

TT4: 母親去了漢城之後, **若不是祖母不時地念叨那些韓文字母**, 恐怕我早就忘得一干二淨了 [5].

위 원문의 굵은 글씨부분 "가에다 기억 하면 각, 니은 하면 간"은 한국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때문에 TT3과 TT4의 번역자는 중국 독자를 고려하여 관련 부분을 자주적으로 창작하여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TT3과 TT4의 해당 부분을 각각 '如何拼寫韓文'(항상 어떻게

한국어 표기를 하는지 알려주다), '不時地念叨那些韓文字母(항상 저런 한국어 자음과 모음을 중얼거리다)'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창조적 번역은 중국 독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반면에 TT1은 최대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였는데, 한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그 의미를 나타내었다. 'ka和k相拼是kak, 和n相拼是kan'으로 이국적 느낌을 살려 번역하였지만 'ㄱ' 발음도 'k'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독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ST: 양반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자식들 혼사를 맺을 때 우리와 걸맞는 양반 중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노론 집안**하고만 맺어야 한다는 고집 정도였다 [1].

TT1: 如果說他有所謂的兩班的責任感, 也不過是認為子女談婚論嫁時一定找個門當戶對且必須和**我家一樣是老論派門第的人家** [2].

TT3: 他所謂的身為兩班的責任感, 只是在為儿女操辦婚事時, 堅持要挑選和**我們家門當戶對的家庭** [4].

TT4: 祖父在與我們地位相稱的兩班中也要固執地選和**我們同屬老論的家族**聯姻了吧 [5].

독자가 위 원문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의 정치·경제·역사·문화 등을 바탕으로 하여, '노론(老論)'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에서 '노론'이 사용된 이유는 '두 집안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형편'이 비슷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즉, 조선 시대 한 당파인 '노론파'를 언급함으로써, 이에 반대되는 당파는 '소론파'를 연상시키고, 이를 통해 조선 봉당정치를 형성한 주요 양대 당파인 '노론'과 '소론'이 갖는 세력의 비등비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TT1은 '노론 집안'을 '老論派門第的人家'(노론 가문의 자제)로 창조역 번역전략을 활용하여 비교적 자세히 번역하였다. 이에 반해 TT3의 번역자는 '노론'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생략하였다. '노론'을 생략해도 전체 문장의 의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창조적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TT4는 '和我們同屬老論的家族(우리과 같은 노론 가족)'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원문이 지닌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TT1보다 더욱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ST: 아이고, 대모 그런 걱정 마시고…… [1].
TT1: 唉呦, 祖母, 不要担心這些…… [2].
TT3: 您別担心…… [4].
TT4: 哎呀, 婆婆您不要担心…… [5].

일반적으로 감탄사는 문장에 사용되어 생동감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TT1과 TT4는 위의 원문에 나타나는 ‘아이고’를 각각 발음이 비슷한 중국어 감탄사 ‘唉呦’와 ‘哎呀’로 번역하여 사실감, 생동감, 진실감 등의 느낌을 더하였다. 반면, TT3은 감탄사를 과감히 생략하는 번역전략을 운용하였는데, 문맥 상 감탄사가 없더라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문장이 다소 생경한 느낌을 주게 되었으므로, 전체적인 어감을 위해서 해당 감탄사를 번역해 주는 것이 좋다. 그밖에 TT1에서 ‘대모’를 ‘祖母(할머니)’라고 번역한 것은 앞서 나온 ‘祖母(할머니)’와 헷갈릴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TT4와 같이 ‘婆婆’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 ST: 일본 벌써부터 지나사변이라 부르는 전쟁(중일 전쟁)을 하고 있었다 [1].
TT1: 日本在很久以前就挑起了叫做支那事變的戰爭(中日戰爭) [2].
TT3: 日本早已挑起中日戰爭 [4].
TT4: 日本早就挑起了中日戰爭 [5].

주지하듯, 일제시기부터 해방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한국에서 중국은 지나(支那)라 불렀다. 본디 ‘지나’는 중국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쓰였지만, 이후 점차 중국에 대한 비하적 호칭으로 사용되면서, 폄훼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 출판된 TT3과 TT4는 모두 중국 독자를 고려하여 ‘지나사변’을 번역하지 않았다. 출판 국가 및 국민 정서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에 대한 번역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한 것이다. 반면, 대만에서 출판된 TT1은 당시 사용된 역사적 용어 등을 그대로 원용하여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출판지와 목표어 독자를 고려한 번역자의 창조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국어 번역본 4종의 번역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지하듯, 박완서의 작품은 인물의 심리 묘사, 추상적인 어휘, 관용어, 속담, 방언 등이 많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이역, 해석역, 창조역 등 다양한 번역 전략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연구한 4종 모두 번역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모든 번역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4종 모두 지명 명사, 인물 호칭 등을 번역할 시에는 한자를 그대로 옮긴 이역 전략을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역사·사회·문화·지리의 배경적 해석이 필요한 어휘 등에 대한 번역은 해석역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중복, 정치·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체, 한국어 발음 및 문법과 관련된 문체 등을 번역할 때는 창조역 전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박완서의 중국어 번역 작품뿐 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현대문학의 중국어 번역 작품에 대한 번역 전략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Park Wan-seo, Who ate up all The Shinga?, Woongjin Think Big, Korea(2005).
- [2] An Jin Lian, Who Ate All the Sing-ah?, Locus Publishing Company, Taiwan(2005).
- [3]. Xue Zhou, Xu Li Hong, Name Duo De Suanmo Dou Rang Shei Chi Le, Contemporary Foreign Literature, China(2005).
- [4] Li Li Qiu, Guxing Piao Yi Yuan,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ers, China(2018).
- [5] Liu Han Ci, Who ate up all the Shinga, Yense University, Master's Thesis, Korea(2018).
- [6] Wang Xiang Yuan, Yiwenxue: Fanyi Yanjiu Xinfanxing, ZhongYang Bianyi Publishers, China (2018).
- [7] Moon Dae-il,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Strategy of 『Mu Yang Ai Hua』 by Perio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7 No.1 January 2021 pp 377-382.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377>
- [8] <https://ko.dict.naver.com/#/main>

※ 이 연구는 2020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 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20-R84)